

광주 대반초등학교, '책놀이' 통한 특별한 다문화 교육 실시

전교생 560여 명 중 다문화 학생 25.4%

260여 명 대상...한국어 학급 3개 반 개설

ZOOM 활용...동시통역 책놀이 수업 진행

광주 대반초가 지난달 9·30일 2차례에 걸쳐 1~3학년 26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놀이를 통한 특별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대반초는 전교생 560여 명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5.4%이다.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급당 5~6명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어 학급' 3개 반을 개설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와 함께 다양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 대부분이 외국인 학생들이라 보니 한국어 소통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업은 물론 같은 반 친구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반초는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 하나로 학부모회와 연계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활동하는 동화구연 강사와 함께 이번 '책놀이'를 통한 특별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대반초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 교내 방송과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번 다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자로 재학생중 외국인 비율이 가

장 높은 우즈베키스탄·러시아 출신 학생들을 각각 선정했다.

두 나라의 환경 및 문화를 학급 친구들과 함께 공유했고, 학년 수준에 맞는 그림책을 활용한 동화 구연 시연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 학생들은 학급 심화활동으로 우즈베키스탄 전통 모자 '도프'를 만들어 봤고, 러시아 전통 목재 인형 '마트료시카'를 꾸며보는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다문화 교육에 대반초 이종언어 강사가 참여해 동시통역이 이뤄져 다문화 학생들이 학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다문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우즈베키스탄이 고향인 대반초 2학년 김폴리나 학생은 "줌(ZOOM)을 활용한 책놀이 활동을 통해 고향을 한국 친구들과 소개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대반초 한 학생은 "이번 다문화 교육을 통해



친구들의 나라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함께 하는 학교생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서부초등학생의회, 비대면 온라인 안전 협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실천 사항 제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달 27일 서부초등학생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방식으로 안전을 협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의장단으로 구성된 안전심의위원회는 학생의원들이 온라인에 제시한 17개의 안전 중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내기'를 심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25일 모든 학생의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의(채팅)를 통해 실천 사항에 대해 협의했고, 온라인 플랫폼의 투표 기능을 활용해 실천 사항을 중요도 순으로 정리했다.

지난달 27일 의장단은 안전에 대한 실천

사항을 의결하고 관내 전체 초등학교에 안내했다.

학생의원들은 최근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내기'에 대한 실천 사항을 제시했다. 실천 사항은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거리두기 잘 지키기,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실천하기, 마스크 잘 쓰기 등으로 정해졌다.

서부초등학생의회는 앞으로도 각 학교에서 실시한 실천사항에 대한 결과물을 모니터링하는 등 일기가 끝날 때까지 의회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조인호기자

장흥교육지원청,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단의 수업혁신 도약

역량강화 연수 계획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양명석)은 11월 9일 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과정 내실화와 환경 기반 조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원단을 구축하여 작은 학교 등 장흥 지역 특성에 맞는 온·오프라인 수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2020. 12월 ~ 2021. 2월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단' 1차 협의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온·오프라인 수업에 따른 학생 교사의 어려움 사례를 공유하고, 2021학년도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의 방향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1학년도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수업을 위한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 온·오프라인 수업 공간대 형성 컨설팅 ▶ 온·오프라인 수업

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향상 방안 ▶ 온·오프라인 수업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단' 2차 협의회에서는 김OO 선생님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교 사전준비 사례 공유 (실태조사/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개최/ 학교 가장 적합한 플랫폼 선정/ 학교 자체 연수/ 온라인 수업 운영 및 자료 공유) 서OO 선생님의 온·오프라인 수업 사례 나눔으로 ▲온·오프 클래스룸 환경조성 ▲온·오프 클래스룸 배려와 존중의 학급 운영 ▲온·오프 클래스룸 학생 참여 중심 수업활동 등 강의를 들어보면서 장흥 지역의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온·오프라인 수업을 위한 장흥 교원 및 참 역할강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단' 협의회에 참석한 임OO 지원단은 "학교 선생님들의 민주적인 협의와 노력으로 구글 클래스룸 학교 자체 연수와 온라인 수업 운영으로 교육부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 장흥의 미래 교육을 위해 온·오프라인 수업 역량강화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또 양OO 지원단은 "3차 협의회에서는 공공 LMS 시범 개통을 지원단이 활용해 보고 플랫폼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장흥 교원들에게 안내해 주는 연수가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무안현경중, 학교마을도서관 개관

카페형 도서관으로 개관

지난달 24일 무안현경중학교(교장 최문식)는 전남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김란), 무안군 의회의장(김대현)을 비롯해 다수의 지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마을도서관 개관식이 진행되었다.

무안현경중학교 학교마을도서관은 2019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은 도서관환경개선사업비(3천만 원)와 올해 무안군 지원금(6천만 원)으로 조성되었다. 이 학교마을도서관은 5월에 공사 추진 작업을 시작하여 11월 20



일 학교예산으로 마련한 책장 비치와 1만 2천여 권의 장서 정리를 마치고 지역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카페형 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전남교육청,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결과' 공개

인조잔디·우레탄 시설 125곳 불합격 판정 '재조성'

전라남도교육청의 유해성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전남도내 인조잔디 및 우레탄 시설 운동장 125곳이 흙 또는 천연잔디로 재조성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374개 학교 60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1월 까지 '인조잔디 및 우레탄 시설 유해성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검사 결과 인조잔디 166개소 중 20곳(12.0%)이 불합격으로 판정됐고, 탄성포장재(우레탄) 441개소 중 105개(23.8%) 시설이 불합격됐다.

전남교육청은 불합격 시설에 대해 출입통제 및 사용중지 결정을 내렸고, 2021년 중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철거(2021년 1~2월 경) 후 마사토(흙) 또는 천연잔디로 재조성한다.

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해성 검사는 공인 검사업체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검사 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샘플을 채취한 뒤 검사기관에서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주요 검사 항목은 해당 시설의 중금속 함량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프탈레이트계 가스제 성분 총량 등 29개의 화학물 성분이며, 각 성분별로 안전기준치 초과 여부를 면밀히 분석했다. 김정환기자

